

제출양식(Proposal)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중국어판(中國語版) 전자(電子) 연환화(連環畫) 시리즈 기획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중국인 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곤 했습니다. 한류를 대표하는 한국 드라마는 다양한 장르와 참신한 내용으로 많은 중국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 중에서 사극을 특히 좋아합니다. 2004년 KBS가 특별 기획한 <명성황후>가 중국 CCTV에서 방송되었는데, 화려한 외교술과 뛰어난 지략으로 조선 역사를 승리로 이끈 위대한 철의 여인 명성황후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정도전>처럼 역사나 역사 인물을 소재로 다룬 사극이 많이 방송되었고, <인현왕후의 남자>처럼 역사를 배경으로 제작한 드라마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아래 대사를 기억하시는지요?

1609년 광해 1년 조선왕조실록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여러 지방에서 동시에 목격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행물체가 날 조선에 데리고 왔죠, 내 고향 행성에 지구인들이 붙인 이름은 KMT184.05 지구와 매우 흡사한 환경의 행성입니다, 난 거기에서 왔어요.

이것은 2014년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1회 첫 장면의 남주인공 대사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조선왕조실록>(그림1)은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조선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객관성을 유지한 조선의 실록으로, 후인들에게 과거 조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지은 작가가 이 실록 중의 한 구절을 이용해 신선한 이야기를 전개해낸 것을 보면 <조선왕조실록>의 독특한 문화적인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림1 조선왕조실록 원본

영국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1909~1992)은 역사는 사람을 현명하게 만든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눈앞의 성공과 이익에만 급급해서 역사를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중들은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도, 정작 그 원천인 한국이란 이웃나라의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이라도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사극을 통해서 부담 없이 재미있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는 있겠지만 동전의 앞, 뒷면처럼 시청자들의 이해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를 배경으로 제작한 드라마가 항상 역사의 진실을 표현하기 보다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내용을 추가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극 <장옥정 사랑에 살다>는 조선 ‘3대 악녀’로 알려진 희빈 장씨를 미화하여 역사를 왜곡한 지적까지 받았습니 다. 이는 한국 역사를 전혀 모르는 중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해의 혼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착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국어판(中國語版) 전자(電子) 연환화(連環畫) 시리즈의 기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기획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짧은 시간에 조선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을 기획하기

세계 최대 단일 왕조 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은 총 1,893권, 888책으로 간행되어 규모가 아주 방대합니다. 이 대량의 내용을 모두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을 투자해 완성한다 해도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대한 분량을 모두 담게 되면 독자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선 역사의 핵심 내용을 재정리하여 『조선왕조실록』을 한 권으로 축약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조선왕조실록』(그림2),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시리즈』,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그림3)등의 출판물이 이미 나와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록 자료는 아직까지 볼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간된 자료들을 참고하여 중



그림2 『조선왕조실록』(이마)



그림3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 실록』
(웅진닷컴)

국민이 읽기 편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을 중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어판으로 새롭게 편찬하는 기획입니다.

둘째, 연환화 (連環畫) 형식으로 조선의 역사를 그려내기

연환화 (連環畫) (그림4)는 중국에서 20세기 초엽에 나타난 만화의 장르로서, 하나의 이야기를 한 페이지에 삽화와 해설(그림5)을 함께 넣어 표현하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림책입니다. 중국 독자들은 한국 역사물을 자신들에게 익숙한 중국 전통 문화의 틀에 결합시킴으로써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으로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역사 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도 확보할 수 있기에 한국 역사 문화의 중국 현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4 연환화 『적벽대전』의 표지



그림5 연환화 『홍루몽』의 삽화와 해설

셋째,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전자판 연환화를 공유하기

정보화 시대 속에서 단순한 종이를 통해 문화를 알리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사람들은 짧은 시간동안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웨이신(WeChat)이라는 스마트폰 앱(그림6)은 사용자가 4.5억을 넘을 만큼 인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웨이신은 친구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 이외에 공식 계정도 설정되었습니다.



그림6 웨이신(WeChat)의 로고

공식 계정은 구독형계정, 서비스형계정 그리고 기업형계정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 콘텐츠를 발송하기에 적합한 구독형계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그림7) 이에 따라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중국어판 전자 변환화를 제작한 후 웨이신 공식 계정(구독형계정)에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성형수술 등 한국의 사회 제반 문제를 다룬 한국어판과 중국어판 전자 만화 <奇奇怪怪>시리즈(그림8)가 구독형계정에 올라 중국인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 이 여파로 작가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계정 사용자들에게 “실록 중국어판 전자 변환화”를 보내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전자 책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릴 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할 때 이 계정을 열고 변환화를 감상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로그인 없이 감상할 수 있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폭넓은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니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림7 웨이신 공식 계정



그림8 <기괴괴괴>의 중국어 버전

이 작업과 동시에,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www.ikorea.ac.kr) 홈페이지에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특별 칼럼을 다국어로 설치하여 중국의 변환화와 같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조선왕조실록 애니메이션과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다큐 영상도 올려서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다국적 독자

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들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인터넷에서 다양한 관련 활동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들 들어 스트레스 킬러링북 <비밀의 정원>이 오프라인상에서 한참 유행했는데 위의 연환화 중에서 한복, 한옥 등 한국 문화 코드를 선정하여 “온라인상에서 독자들이 색칠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그림책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인터넷에서 ‘조선왕조실록 퀴즈 대회’가 열려 우수상을 받은 외국인에게 한국 역사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탐방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외국인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외국인이 한국을 한층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중국어판 전자 연환화 시리즈 기획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족하나마 이 작은 기획안이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중국에 널리 알리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날짜(Date) 2015/09/26

서명(Signature) 장 퇴

